

노인-기혼성인자녀간 지원교환 및 성공적 노후수준 연구

김 수 화(경희대 석사) · 오 윤 자(경희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 수준과 유형, 성공적 노후수준의 전반적인 경향,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 및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이 성공적 노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령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결혼한 성인자녀를 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종분석에 45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첫째,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수준 척도로 한경혜·홍진국(2000), 윤현숙(2003), 정일영(2008)의 척도를 기초로, 노인제공차원과 노인수혜차원으로 분류한 각 6개 문항이며 하위영역은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 유형은 노인과 기혼성인자녀의 지원의 방향과 양에 따라서 상호교환형, 노인공급형, 노인수혜형, 무교환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성공적 노후수준 척도는 김동배(2008), 안정신·강인·김윤정(2009), 김정순(1988), 박경숙(2011)에 기초하여 22개 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로 자율적인 삶, 적극적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 t-test, ANOVA 및 Scheffe-test,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 정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받는 지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제공차원과 노인수혜차원 모두 정서적 지원교환이 가장 높은 반면, 경제적 지원교환이 가장 낮았다. 지원교환 유형은 노인수혜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노후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은 $M=3.72(SD=.78)$ 로 중간값인 2.5보다 다소 높았다. 둘째, 전반적으로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정도 및 성공적 노후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성공적 노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델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 성별, 배우자 유무가 성공적 노후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여성 및 유배우자의 경우, 성공적 노후수준은 높았다. 성공적 노후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모델1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은 37.7%, 모델2에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 변인과 사회활동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45.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지원교환에 대한 만족도가 모델2의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나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은 물론 지원교환에 대한 노인만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국가·지역 사회·가족 및 노인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